

내년 국비확보 역대급 성과 광주·전남 숙원사업 풀린다

각각 2조8666억·7조6671억
전년비 1028억·4775억 늘어
광주 신규사업 87건 1635억
전남 블루이코노미 대거 반영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경쟁에서 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역대급 성과를 내면서 운전면허시험장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도 핵심사업인 블루이코노미 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이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관련기사 3면〉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2조8666억원에 이르는 2021년도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2조7638억원보다 1028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2020년도) 2조 5379억원과 비교하면 3287억원이나 증가했다. 신규 사업은 87건 1635억원이 반영됐고, 계속 사업은 252건 2조7031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정부 지정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기반 구축 사업비로 10억원이 반영돼 조기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 시는 또 미래산업으로 친환경 공기 산업 육성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공기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민 숙원사업으로 광주송정역사 증축비 20억원,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비 20억원 등이 반영된 점도 핵심 성과로 꼽힌다.

시는 또 현안사업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비(645억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으며,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3억원)와 솔로몬로파크 건립비(37억원) 등도 확보했다.

SOC 관련 예산도 역대급으로 잘 쟁겼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확장(20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2261억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10억원), 북구순환도로 개설(50억원), 광주순환도로 2구간 건설(19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2021년 정부 예산에 모두 7조 6671억원이 반영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2020년 국비 7조1896억원과 비교하면 4775억원(6.6%)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 핵심사업인 블루이코노미 124개 사업 1조2793억원, 한국판 뉴딜 57개 사업 2849억원이 반영됐으며, 특히 국

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 됐던 전남도의 핵심사업들이 신규로 대거 반영됐다.

SOC 분야에서는 전남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1조7000억원)'에 110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최종 297억원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총사업비 2조 4000억원)' 사업도 최종 4240억원(공단부담금 포함)을 확보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고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R&D 분야는 총 51건 1578억원이 반영됐다. 또 지난 7월 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총사업비 467억원)' 사업은 설계 및 공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총사업비 490억원)' 사업 설계 및 부지매입비로 44억원이, 화산백신산업특구 내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사업비 1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에 국고예산을 확보한 사업 중 공모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공모준비와 함께 집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블루 이코노미 등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생했어! 딸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3일 오후 광주시 남구 26지구 제31시험장 인 동아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부모들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수능, 지난해보다 대체로 쉬웠다

결시율 높아 정시 경쟁 심화 예고
국어·영어 1등급 컷 다소 오를 듯

3일 '코로나19' 속 사상 초유의 '방역 수능'으로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방역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차분하게 마무리됐다.

광주·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는 41개 시험장 898개 시험실, 전남은 56개 시험장 811개 시험실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졌다.

방역 지침에 따라 광주에서는 유증상 수험생 5명과 자가격리자 2명, 전남은 유증상자 12명이 별도 시험실에서 확진자 2명은 병원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다. <관련기사 6·7면>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은 전년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영역은 변별력 있게, 영어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국어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한 출제 난도를 유지했고, 초고난도 문제가 없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소 쉽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 1등급 컷을 92~93점으로 가능했다. 국어의 지난해 1등급 컷은 91점이었다

수학은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시험 범위가 바뀐 수능 시험이기에 전년도와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쉽지만, 전년처럼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학 예상 1등급 컷을 수학 가형은 92점, 나형은 88점으로 전망했다.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된 전년도 수능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수험생들이 이렇듯 풀 수 있는 신유형은 출제되지 않았으며, 문항 배치와 유형이 6월·9월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편성돼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1등급 비율 7.4%보다 다소 증가해 8%를 웃돌 것으로 보여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 진학팀은 학생인구 감소와 전년보다 높은 결시율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진학팀은 "결시율이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등급 충족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정시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과목당 최저 등급 요건이 까다로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거 수시 탈락이 정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오는 7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14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23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단계 연장이냐 1단계 하향이나 시민들 주말 방역 준수에 달렸다

광주시 방역 결과 따라 6일 결정
안정세 속 수능 이후 변수 경계
이동 자제 등 개인 방역 당부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와 함께 학생 등 젊은층의 활발한 대외 활동이 집단 감염 재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소 오는 6일까지 외부활동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인 광주시는 이번 주말 방역결과에 따라 2단계 연장 또는 1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이 일상 복귀를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는 수능일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1명이 확진돼 지역 확진자는 모두 732명으로 늘었다. 전남은 전날 2명이 발생했으나, 이날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 429명을 기록했다.

광주에선 지난달 24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하다가 지난 2일 3명으로 떨어진 뒤 이를 연속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에선 집단감염지였던 전남대학교병원(76명), 직장 체육동호회(24명) 관련 접촉자들의 자가 격리 해제일이 지나면서 확진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다만 수능 이후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0시부터 오는 6일까지 100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도심 주요 변화가와 피서장, 청소년 시설 등으로 몰려들면서 대인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능 이후 면접 준비와 시험을 위해 대규모 감염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교와 학원 등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감염세가 심각한 만큼 지역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말 방역 결과에 따라 오는 6일 2단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황금세아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양대로 1041(마정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명대로 516(수원동)
호남세아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원대로 603(백갈 20호 수원동)
수원세아센터 (062)945-1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림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 A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1도 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1도 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1도 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1도 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